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인터넷회원 예약시
평일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5만원까지 할인가능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7714

2008 프로야구 오늘 플레이 볼

KIA 용병 리마 '사자 사냥'

대구서 삼성 배영수와 선발 맞대결

8개 구단 에이스 총출동 개막전 쇼

'반갑다 야구야!"

2008시즌 프로야구가 29일 4개 구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올린다.

'V10'을 노리고 있는 KIA타이거즈는 대구에서 삼성 라이온즈와의 일전을 벌이게 된다.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지난해 챔피언 SK 와이번스가 LG 트윈스를 불러 들여 첫 승을 노리고, 잠실에서는 두산 베어스가 신생팀 우리 히어로즈와 맞붙는다. 대전에서는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개막전이 열린다.

올 시즌은 각 팀이 고른 전력을 보이며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치열한 순위 다툼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개막전부터 기세 싸움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개막전 승리를 위해 마운드에는 각 팀의 에이스가 총 출동한다. 대구와 잠실에서는 토종 에이스와 용병 에이스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는 역대 최고 용병으로 꼽히는 호세 리마를 내세우고, 삼성은 부상에서 돌아온 에이스 배영수로 맞불을 놓는다. 잠실에서는 레스(두산)-마일영(우리)이 마운드에 나선다.

문학에선 프로야구의 익숙한 얼굴 레이번(SK)-브라운(LG)이 용병 대결을 펼치고, 대전에서는 류현진(한화)-손민한(롯데)이 토종 에이스의 자존심을 걸고 신·구 대결을 펼친다.

프로야구에 첫선을 보이는 신인들의 활약 여부도 개막전 볼거리로 꼽힌다.

어느 해보다 신인들의 기량이 풍성하다는 평가처럼 이번 개막전 엔트리에 롯데를 제외한 7개 구단의 신인 15명이 합류했다.

KIA는 시범경기에서 4번타자로 맹활약한 나지완(외야수)을 비롯해 김선빈(내야수)·최용규(내야수)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나지완은 개막전에 주전으로 출전, 신인 첫 홈런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한화도 이희근(포수)·윤기호(투수)·오선진(내야수) 등 3명의 신인이 개막전 엔트리에 포함됐고, 두산은 진야곱·고창성(이상 투수), 삼성은 허승민(외야수)과 이영욱(외야수), LG는 정찬헌·이범준(이상 투수) 등의 신인이 프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 SK의 모창민(내야수)과 우리의 김성현(투수)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KIA는 대구에서 삼성과의 2연전을 치른 뒤 4월 1일 서재응을 앞세워 두산과의 홈 개막전을 갖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2008 시즌 경기일정

	날짜	요일	대전팀(구장)
3월	29~20	토~일	삼성(대구)
4월	1~3	화~목	두산(광주)
	4~6	토~일	한화(대전)
	8~10	화~목	SK(광주)
	11~13	토~일	롯데(사직)
	15~17	화~목	LG(잠실)
	18~20	토~일	한화(광주)
	22~24	화~목	우리(광주)
	25~27	토~일	SK(문학)
	29~5.1	화~목	두산(잠실)
5월	3~5	토~월	롯데(광주)
	6~8	화~목	삼성(광주)
	9~11	금~일	우리(목동)
	13~15	화~목	한화(대전)
	16~18	금~일	LG(광주)
	20~22	화~목	롯데(광주)
	23~25	금~일	LG(잠실)
	27~29	화~목	SK(광주)
	30~6.1	금~일	두산(잠실)
6월	3~5	화~목	한화(광주)
	6~8	금~일	삼성(광주)
	10~12	화~목	우리(목동)
	13~15	금~일	SK(문학)
	17~19	화~목	LG(광주)
	20~22	금~일	두산(광주)
	24~26	화~목	한화(대전)
	27~29	금~일	롯데(사직)
7월	1~3	화~목	우리(광주)
	4~6	금~일	삼성(대구)
	8~10	화~목	한화(광주)
	11~13	금~일	SK(문학)
	15~17	화~목	롯데(사직)
	18~20	금~일	두산(광주)
	22~24	화~목	삼성(광주)
	25~27	금~일	우리(목동)
	29~31	화~목	LG(광주)
8월	3	일요일	올스타전
	베이징 올림픽 관계로 일정 미정		

롯데 구단별 전력분석 <下> 기아

외국인 감독 영입 변화

'변화의 바람'

롯데 자이언츠는 2001년 부터 4년 연속 꼴찌를 차지하며 '꼴데'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었다.

지난 해에도 7위로 시즌을 마감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최약체로 꼽히던 롯데가 이번 시즌을 통해 이미지 변신에 나서고 있다. 프로야구 사상 처음으로 외국인 감독을 영입하면서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덕아웃에 활기가 돌고 있다.

용병들의 활약도 예상된다. 용병 매클레리는 손민한과 막강 원투펀치를 이루고, 타석에서는 멕시코 국가대표인 가르시아가 이대호와 '거포'타선을 구축했다.

밝아진 팀 분위기에 힘입어 7승5패의 성적으로 시범경기를 3위로 마감하면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올림픽 대표팀으로 나서면서 기량이 급성장한 외야수 김주찬도 팀 변화를 이끌 전망이다.

서재응 가세 'V10' 넘봐

'2008시즌 다크호스'

지난해 꼴찌 KIA는 8개구단 중 가장 전력이 강화된 팀으로 꼽힌다. 조범현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해 빅 리거 서재응, 호세리마, 발데스가 팀에 가세했고 나지완, 김선빈 등 신인들도 알차다.

장성호, 최희섭은 시범경기에서 맹타를 휘드르며 타선의 무게를 더했다. 약점으로 꼽히던 내야도 발데스가 들어오면서 짜임새가 더해졌다.

빠른 발의 선수들을 통한 기동성도 눈에 띄게 좋아진 부분이다. 불펜에는 곽정철, 전병두, 한기주 등의 젊은 강속구 투수가 즐비하고, 돌아온 유동훈도 시범경기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주전과 백업의 격차도 줄어드는 등 팀 전력이 한층 좋아져 4강은 물론 'V10'까지 넘보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광주일고와 선린인터넷고의 황금사자기 8강전에서 광주일고 5번 김태형이 3회 1사 2,3루 상황에서 번트를 한 후 1루로 슬라이딩하고 있다. 〈동아일보 제공〉

'라이온 킹' 이승엽 개막전 4번 타자

'라이온 킹' 이승엽(32·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년 연속으로 일본프로야구 개막전 4번 중책을 맡았다.

이승엽은 28일 메이지진구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개막전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선발 출장했다.

올 시즌 야쿠르트에서 이적한 알렉스 라미레스(34)는 좌익수 겸 5번으로 나와 3번 오가사와라 미치히로, 4번 이승엽과 함께 클린업트리오를 이뤘다.

2005시즌이 끝난 뒤 지바 롯데 마린스를 떠나 요미우리로 둥지를 옮긴 이승엽은 한해의 출발점에서 변함없이 '거인군단' 4번타자의 중책을 맡게 됐다.

광주일고 4강 안착

선린인터넷고에 10-0 콜드 승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제 62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광주일고가 2경기 연속 콜드게임 승을 거두며 4강에 진출했다.

광주일고는 28일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벌어진 선린인터넷고와의 8강전에서 투·타의 활약을 앞세워 10-0으로 5회 콜드 게임승 했다.

이날 경기에서 광주일고는 1회 조영선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 매회 점수를 올리며 선린인터넷고를 상대로 12개의 안타를 뽑아내는 등 막강 타선을 자랑했다. 7번타자 윤민섭은 단타, 2루타, 3루타를 때려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4회까지 차곡차곡 9점을 만든 광주일고는 선취점을 만들었던 조영선의 적시타로 10-0으로 5회 일찌감치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광주일고가 4강을 결정짓는데 걸린 시간은 겨우 1시간 35분에 불과했다.

마운드에서도 광주일고는 선발 장민제와 김인성(3회)-박국남(5회)이 볼넷 3개만 내주고, 단 한 개의 안타도 허용하지 않는 등 철벽 마운드로 우승후보의 면모를 과시했다. 광주일고는 29일 정오 서울고와 결승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콘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상담문의 (062)351-0095

'롱히터' 이지영 공동 4위

LPGA 세이프웨이 1R 오초아 2위

'골프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시즌 2승을 향한 잰걸음을 걸었다.

오초아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슈퍼스티션마운틴의 슈퍼스티션마운틴 골프장(파72·6천662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첫 날 1라운드에서 버디 9개에 보기 2개를 묶어 7언더파 65타를 쳐 선두에 3타 뒤진 단독 2위에 랭크됐다.

290야드에 육박하는 장타를 폭발시키며 버디 9개를 뽑아낸 오초아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다 보기 2개를 적어낸 것이 옥에 티였다.

선두는 자신의 최소타 기록을 경신한 안젤라 스탠포드(미국). 스탠포드는 신들린 퍼트감을 앞세워 보기없이 버디만 10개를 쓸어 담아 10언더파 62타를 쳤다. 62타는 2004년 크리스티 커(미국)가 세웠던 코스레코드 63타를 1타 줄인 새로운 기록.

2001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스탠퍼드는 2003년 숍라이트클래식에서 단 한번 우승을 차지했을 뿐 늘 중위권 성적을 내던 선수.

하지만 스탠퍼드는 이날 때리면 그린에 안착한 아이언샷과 굴리면 홀을 찾아 빨려드는 퍼팅이 어우러지면서 자신의 18홀 최소타 기록을 깨는 신바람을 냈다.

'코리안 군단' 중에서는 장타자에 유리한 코스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롱히터' 이지영(23·하이마트)이 가장 앞서 나갔다. 이지영은 장타에다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쇼트게임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5언더파 67타를 쳐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조건부 시드권자로 출전 기회를 얻은 최나연(21·SK텔레콤)은 4언더파 68타를 공동 8위로 그 뒤를 이었다. 장정(28·기업은행), 김주연(27), 김초롱(23)이 공동 11위(3언더파 69타)에 랭크되며 무난한 출발을 했다.

한희원(30), 지은희(22.이상 휠라코리아)가 공동 19위(2언더파 70타)에 랭크된 가운데 김미현(31·KTF)은 공동 33위(1언더파 71타), 박세리(31)는 공동 73위(1오버파 73타)에 그쳤다.

수영 자유형 50m 설리번, 세계신기록

호주의 에먼 설리번(23)이 남자수영 자유형 5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다.

설리번은 27일 밤 호주 시드니올림픽수영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대표 선발전 남자 자유형 50m 결선에서 21초41에 터치패드를 두드렸다.

이 기록은 알랭 베르나르(25·프랑스)가 지난 24일 열린 2008 유럽수영선수권대회에서 세웠던 종전 기록(21초50)을 0.09초 앞당긴 것이다.

박진 취리히클래식 1R 17위

재미교포 박진(31·던롭스릭슨)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취리히클래식에서 첫날을 중상위권에서 마쳤다.

박진은 28일(한국시간)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루이지애나TPC(파72.7천341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전반에 좋았던 스코어를 지키지 못하고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17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9일(토)

▲2008 PGA 취리히 클래식 2R(04 : 00·SBS골프·SBS스포츠)

▲2009 LPGA 세이프웨이 인터내셔널 2R(07 : 30·SBS골프)

▲2008 프로야구〈롯데 : 한화〉(13 : 30·KBS N SPORTS)〈LG : SK〉(13 : 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개막전〈기아 : 삼성〉(13 : 50·SBS)

▲07/08 프로농구 플레이오프 준준결승 1차전(14 : 50·XPORTS)

▲2008 일본프로야구〈야쿠르트 : 요미우리〉(15 : 00·MBC ESPN)

▲2008 K리그〈부산 : 광주〉(18 : 50·SBS스포츠)

30일(일)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볼튼 : 아스날〉(00 : 00·MBC ESPN)〈맨체스터 Utd : 아스톤빌라〉(02 : 00·MBC ESPN)

▲2008 PGA 취리히 클래식 3R(05 : 00·SBS골프·SBS스포츠)

▲2008 일본프로야구〈야쿠르트 : 요미우리〉(13 : 00·MBC ESPN)

▲2008 프로야구〈한화 : 롯데〉(13 : 20·KBS1)〈KIA : 삼성〉(13 : 45·SBS스포츠)

▲07/08 V리그 남자부〈현대캐피탈 : 삼성화재〉(13 : 30·KBS N SPORTS)

▲07/08 네덜란드리그〈NAC브레다 : 페예노르트〉(19 : 20·SBS스포츠)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첼시 : 미들스브로〉(21 : 30·MBC ESPN)

31일(월)

▲07/08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리버플 : 에버튼〉(00 : 00·MBC ESPN)